

스튜디오S 故 이힘찬 드라마프로듀서 사망사건에 대한 **유가족 및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2년 3월 3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스튜디오S 故 이힘찬 드라마프로듀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SBS본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민주노총법률원, 돌곶노동법률사무소)

■ 진행 순서

- 고인 약력 및 경과 보고
- 발언 1.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 2. 정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
- 발언 3. 이 희 유족 대표(동생)
- 발언 4. 김유경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
- 발언 5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

■ 고인 약력

□ 이 름 : 이 힘 찬

□ 생년월일 : 1987년 2월 22일생

□ 소 속 : 스튜디오S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조합원

□ 직 무 : 드라마 프로듀서

□ 사망일시 : 2022년 1월 30일(향년 만 34세)

□ 주요 업무 경력

2012. 4 SBS 제작운영팀 신규입사

2013. 4 SBS 재무팀 전보

2017. 5 SBS 드라마운영팀 전보

- 드라마마케팅 업무 수행 후 프로듀서로 직무 변경

- <사의찬미>(2018년), <초면에 사랑합니다>(2019년) 프로듀서

- <아무도모른다>(2019~20년) 프로듀서

2020. 4 드라마본부 분사에 따른 스튜디오S 전적, 프로듀싱팀 배속

2020. 5 스튜디오S 경영기획팀 겸직

- 분사후 회사 회계시스템 정립 업무 수행

2021. 1 스튜디오S 경영기획팀 겸직 해제

2021. 8 스튜디오S 선임사원 승진

- <치열업>, <3인칭 복수> 프로듀서, 편성변경으로 프로그램 변경

2021. 9 ~ 사망 당시 <소방서 옆 경찰서> 프로듀서

※ 프로듀서 : 스튜디오S의 설명에 따르면 프로듀서는 연출과 함께 프로그램 제작 전반의 과정을 관리·감독하는 제작부의 수장으로 연출/조연출과 협의하여 드라마가 적정 예산으로 정확한 스케줄에 방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대응 경과 보고

- 2022년 1월 30일(일) 고인 사망
- 2022년 2월 1일(화) 발인
- 2022년 2월 11일(금) 공동 대책 모임
 - 유가족대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돌꽃노동법률사무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참석
- 2022년 2월 18일(금) 유가족-스튜디오S사측 1차 공식 면담
 - 사측 대표, 경영국장, 프로듀싱팀장 참석, 유가족은 아버지, 이모, 이모부, 동생 참석, 지원단체로 언론노조, 한빛센터, 민주노총법률원 배석
 - 사측 조사 결과 청취하고 보다 제대로 된 조사 위해 SBS까지 참여하는 ‘노사공동조사위원회’ 구성 의견을 사측에 전달함
- 2022년 2월 21일(월)
 -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유가족 뜻을 담아 SBS와 스튜디오S 사측에 ‘노사공동조사위원회’ 구성 요청 공문 발송
- 2월 23일(수) SBS, 스튜디오S 사측 ‘노사공동조사위원회’ 참여 거부 통보
- 2월 28일(월) 대책위 구성 회의
 - 유가족대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SBS본부, 민주노총법률원, 돌꽃노동법률사무소 참석
 - 양 사측이 공동조사 거부함에 따라 공개 대응으로 전환하고 재차 ‘공동 조사 참여’를 촉구하기로 함. 공동 조사 무산 시 단독 조사 추진하기로 함

■ 유족 대표 발언

저는 故 이힘찬 프로듀서의 유족대표인 동생 이희입니다.

12년 4월, 저희 형은 SBS 제작 운영팀에 신규 입사하였습니다. 이는 가족에게 선물이자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어려운 세상살이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 방향을 힘찬이 형이 제시해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형은 제작 운영팀 및 재무팀에서 약 5년간 성실히 근무한 뒤 드라마운영팀으로 전보되었고 스튜디오 S로 분사된 현재까지 드라마 제작의 길을 5년간 또다시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십 년의 세월이 흘러 입사 이력서에 붙여졌던 증명사진이 영정이 되어 갑작스레 가족 품에 돌아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친 동료들 병원에 데려다주며 주변을 먼저 챙기던 형은 정작 자신을 미처 돌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끝내 과중한 업무를 버티지 못해 '모든 것이 버겁다'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남기고 촬영이 있던 1월 30일 아침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떠나갔습니다. 「소방서 옆 경찰서」 라는 드라마의 촬영 시작 후 불과 이십여 일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처음 이 소식을 아버지로부터 접했을 때에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 술 한잔 기울이며 같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던 힘찬이 형의, 우리 형의 상주가 되어 빈소를 지키고 술잔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형이 가족에게 제시해 주었던 삶의 방향을 기억합니다. 남은 이들이 드라마 현장에서 대중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작품 제작을 이어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측은 2월 18일 유족과의 공식 자리에서 십페이지 남짓한 주변 동료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제시하며, 그 과정을 이해하라 합니다. 프로듀서가 힘들다 힘들다 토로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어서 눈치를 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프로듀서의 일은 원래 그렇다고 합니다. 사측은 유족의 가슴에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고인이 드라마

인으로서 보낸 시간이 5년입니다. 사측에서 2주간 조사한 십페이지 자료를 보며 어찌 형을 제 가슴에 묻으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님은 아직도 집 밖에 제대로 나오실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남은 가족마저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까 너무 두렵습니다.

사측에 적극적 협조를 촉구합니다.

객관적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사공동조사 위원회’ 구성과 참여를 수용하여 주십시오.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사과를 하여 회사에 헌신한 형의 명예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남아 있는 자의 도리를 다하여 주십시오.

■ 기자회견문

故 이힘찬 프로듀서 사망 사건에 대한 유가족과 대책위의 입장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야 할 설명절 연휴에 한 젊은 방송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그의 이름은 ‘이힘찬’, 올해 만 서른네살로 10년간 방송사에 청춘을 바쳤다. 지난 2012년 4월 SBS 제작팀에 입사한 고인은 재무팀을 거쳐 2017년 드라마운영팀으로 전보해 프로듀서로 직무를 변경하고 2020년 드라마본부 분사 후에도 스튜디오S로 전적해 프로듀싱 업무를 맡는 등 의욕적으로 일해왔다. 고인은 2018년 ‘사의찬미’, 2019년 ‘초면에 사랑합니다’, 2020년 ‘아무도 모른다’를 성공적으로 프로듀싱해 프로듀서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고 한다. 회사 관계자들과 동료들은 고 이힘찬을 “자신감 넘치고 준비성이 철저하며,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동료”라고 입 모아 기억한다.

그런 그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비보에 가족과 동료들은 황망함을 감출 길이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열정 넘치던 서른네살의 방송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 우리는 묻고 또 묻는 중이다. 유가족과 대책위에 참여한 단체들은 동료들의 증언, 업무 자료 등을 토대로 고인의 사망에 업무로 인한 압박 등 업무 관련성이 있음을 파악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유가족과 대책위의 추정일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조사’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사측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故 이한빛PD와 이재학PD 사망사건 조사 과정에서 그 중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SBS사측과 스튜디오S 사측은 유가족의 뜻을 담아 노동조합이 요청한 ‘노사공동조사위원회’를 거부했다. SBS사측은 별도 법인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책임을 회피 했고, 스튜디오S 사측은 진행된 적 없는 “유가족과의 성실한 조사 협조”를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 요구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의 죽음에 대해 노동조합이 회사에 공동 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거부했다. SBS사측은 마치 책임이 없는 듯 말하지만 드라마 편성과 예산, OTT계약 등을 사실 상 SBS가 결정한다는 점에서 업무의 무리한 점을 따지려면 SBS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고인이 입사했던 회사도, 마지막까지 일했던 회사도 모두 원인 규명을 위한 협조를 거부한 사실 앞에서 유가족이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 밖에 없었다. 우리 힘으로도 철저히 조사해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뿐이다.

고인의 이름을 드러내야 하고, 그가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겼을 드라마가 알려져야 하고, 그 현장에서 여전히 일해야 하는 동료들을 고려해야 했기에 가족들은 공개 대응 여부를 숙고하고 또 숙고했다. 거대한 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유가족과 대책위도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밝혀내고 필요한 재발 방지대책을 만드는 것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힘들지만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SBS와 스튜디오S 사측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감출게 없다면 피할 이유도 없다.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밝혀서 뜯어 고쳐야 한다. 양 사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보다 신속한 조사와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 고인을 진정으로 애도하고 추모한다면 ‘노사공동조사위원회’구성과 참여를 수용하라. 이에 대해 3월 8일까지 노동조합을 통해 대책위원회에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우리는 사측과의 파국적인 갈등이 아니라 협조를 통한 제대로 된 조사와 재발 방지책 수립을 원한다. 만일 이때도 사측이 공동조사를 재차 거부한다면 유가족과 대책위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독자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활동에 돌입할 것임을 밝혀 둔다. 진심으로 요청한다.

고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날, 머리를 쥐어짜며 드라마 예산안을 네댓 차례나 수정한 그가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보낸 SNS 메시지가 가슴을 찌른다. “모든 게 버겁다.” 고인의 침대 머리맡에는 ‘CG 우선 요청 리스트’라는 문서가 놓여 있었다. 고인의 영정 사진은 10년전 SBS 입사 지원서에 낸 사진이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억울한 죽음으로 남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지혜와 힘을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할 것을 다짐한다. K-드라마와 한류콘텐츠에 대한 칭송과 환호가 쏟아지는 오늘,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미디어노동자들의 땀과 권리를 잊지 말자.

2022년 3월 3일

스튜디오S 故 이힘찬 드라마프로듀서 사망사건 대책위원회